

2005년 인구총조사에 반영된 출산의 현황과 전망

권태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I. 머리말

1960년 이후 한국 출산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매우 높은 통제되지 못한 출산력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1962년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합계출산율은 6을 넘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20여 년 후인 1980년대 중반에는 인구재생산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인구급증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숨을 내뿜기 무섭게, 이제는 새로운 공포, 인구의 빠른 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¹⁾ 출산력은 제1차 변천에 이어 휴식도 없이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사회가 겪기 시작한 제2차 변천으로 돌진하여,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후인 1995년에는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수준인 1.65를 기록하였고, 감소는 계속하여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에 인구가 반감하게 되는 상태인 합계출산율 1.08에 이르렀다.

표1: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995-2006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FR	1.65	1.47	1.3	1.17	1.19	1.16	1.08	1.13
15-19	3.6	2.5	2.2	2.6	2.5	2.3	2.1	2.2
20-24	62.9	39	31.6	26.6	23.7	20.4	17.9	17.7
25-29	177.1	150.6	130.1	111.3	112.3	104.6	92.3	89.9
30-34	69.6	84.2	78.3	75	79.9	84.2	82.4	90.2
35-39	15.2	17.4	17.2	16.7	17.3	18.6	19	21.5
40-44	2.3	2.6	2.5	2.4	2.5	2.5	2.5	2.6
45-49	0.2	0.2	0.2	0.2	0.2	0.2	0.2	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출생 및 사망), 각 연도.

여기서 당연히 몇 가지 인구학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성격은 무엇이며, 과연 인구는 언제 다시 안정성장상태로 돌아 갈 것인가?” 하

1)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두섭, 2005 참조할 것.

는 질문이다. 인류의 인구역사상 제2차 출산력변천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며, 인류 문명에 대한 그 영향력은 가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날 출산연구의 초점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성격규명과 인구의 재안정 상태로의 전이에 놓여 있다. 이미 제2차 변천에 깊숙이 진입한 사회에서는 광범하게 출산장려정책의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들 선진국의 경험을 기초로 서둘러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 날의 인구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사회의 모든 영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개인의 출산행위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과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소가족 메시지는 이제는 부머랭이 되어 우리 앞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 가족이 저출산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이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에 장애 요인 임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극도의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성의 기초인 보편혼의 개념이 사라져 가고 있다. 만혼과 함께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현상도 널리 나타나고 있다. 아직 무자녀 가족의 이념이 지배적은 아니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부각되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복지의 확충은 그 자체로는 매우 중요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엄격하게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반대의 맥락에서, 즉 저출산 정책으로, 주장 실시되어 오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력 연구는 매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출산력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활성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일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자료의 생산, 그리고 출산에 대한 관심의 다각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혼인의 연구와 정책에서 자녀의 재생산은 이미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와 자녀양육의 조화로운 병행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저출산은 청소년, 학교교육, 성 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관념적,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고 방향 짓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모두가 공유하는 바가 되었고, 따라서 각종 출산과 관련된 조사자료들이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책적 목적에서 수행된 이들 조사자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가령,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단편적이며 과제 지향적인 특징을 갖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정책적 연구는 아직도 전체 틀을 바꾸는 창조적인 내용 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정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조사의 남발과 자료의 생산, 다른 조사자료와의 통합적 분석의 결여, 조사의 지속성 결여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2005년 센서스 결과분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 연구의 관심이나 틀에서 떠나,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을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보다는 센서스 자료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읽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말로, 체계성과 집중성을 강조하는 연구라기 보다는 탐색적이고 시사적인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는 흔히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연구

에서 간과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센서스에서 제공해온 출산관련 항목인 총출산아수의 추세, 총출산아수와 더불어 최근에 수집되기 시작한 추가계획자녀수를 통한 생애 기대가족규모의 개관, 그리고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인구를 통한 출산의 양상과 여성의 가족 생애주기에 관한 단편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II. 자료의 종류와 구성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태통계는 보고의 완전성이 매우 낮아 인구학적 지표작성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 반면 센서스 자료는 매우 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각종 출산관련조사가 실시되어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부분이 가족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산력과 출산행위 분석에는 부적합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가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각종 분석이 활성화되면서 조사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동태통계의 개선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이것이 출산력 분석의 기초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센서스를 이용한 출산력과 출산행위의 분석은 매우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 날 센서스에 기초한 출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 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스는 인구연구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센서스의 역사와 명성, 그리고 센서스가 제공하는 자료의 포괄성과 질에 근거한다. 특히 많은 사례의 관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구학적 행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구센서스만큼 큰 장점을 갖는 자료도 드물다.³⁾

이미 동태통계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의 업적으로는 전광희(2006)의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그는 연령별 출산수준의 특징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구성요인을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최근 센서스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출산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기혼여성의 출산관련 현황으로 여기에는 성별 총 출생자녀 수와 사망아수, 동거 및 별거자녀수, 그리고 추가 출생계획자녀수가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출산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것은 0-4세 인구자료이다. 이것은 엄격하게는 출산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이들 자료를 이용한 성공적인 출산력 측정의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 (가령, Cho L-J, 1973; Kwon T-H, 1977: Ch. VI), 그리고 2005년 센서스에서는 자녀들에 관해 “모와의 동거 여부를 묻고 있어”, 이 자료를 모와 연결시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0-4세 인구는 유용성이 큰 출산관련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0-4세 자료는 특히 최근 5년 사이의 출산력과 출산행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2) 통계청의 평가에 따르면 1975년 56.2%였던 출생신고의 완전성은 1990년에는 95.2%로 올라가고 있다 (Kim M-K, 2004: 57).

3) 한국 인구센서스에 관해서는 김민경(2000)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대된다. 다시 말해 센서스 분석연구라는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이 연구는 기혼 여성의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이용한 총체적 출산상황의 이해와 0-4세 자녀의 재구성자료를 사용한 2001-2005년의 출산상황의 파악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둘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갖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 직접적인 출생관련 문항이 등장한 것은 1960년이였다. 여기에는 기혼여성에게 “총출생아수”를 묻는 항목이 나타나고, 그 결과도 상세히 제표되었다.⁴⁾ 그 이후, 1995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센서스에 이 항목과 그때그때 생존자녀수나 동거자녀수 등의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김민경, 2000: 제4장; 권태환·김두섭, 2002: 244 참조). 그리고 이들 자료는, 10-20% 표본자료에 입각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출산력”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과 2005년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제목의 센서스 보고서로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집된 이들 자료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분석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전에는 센서스 보고서의 출간이 늦어 자료의 시의성이 약하였다는 점, 총출생아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출산력 분석기법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1960년대 중반부터 가족계획 및 출산력 조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1980년 이후 동태통계의 질이 출산력 분석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은 아직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이것이야 말로 40년 이상에 걸친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성을 지닌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2005년 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통합적인 시계열 분석은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2005년 센서스 자료는 10% 표본조사를 기초로 만든 2% 원자료 표본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는 모든 기혼여성에게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아 출생아수와 여아 출생아수, 그리고, 센서스에서는 처음으로, 추가계획자녀수를 묻고 있다. 남녀별로 생존 및 사망 자녀수, 동거 및 별거 자녀수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집계된 총출생아수와 추가계획자녀수에 관한 제표는 센서스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2%표본자료와의 연결분석하기가 어려워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였다. 또한 센서스의 개인 정보는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다. 가령 3세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정보는 이 아이의 정보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모나 주 양육자의 정보를 포함한 0-4세 자녀의 표본 파일은 자녀의 모 동거여부에 관한 항목과 가구 파일을 이용해 별도로 구성하였다. 모와 동거하는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여성들 가운데서 제시된 조건에 맞는 여성을 어머니로 선택하여 그 여성의 정보를 해당 자녀의 정보와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정보는 가구구성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자녀의 성 및 기혼여성의 출생 남아수 및 여아 수, 동거 자녀 수였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아 동거 어머니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자료 오류로 판단해 별도로 뽑아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

4) 13세에서 49세까지는 매우 간격, 그 이후는 5세 간격으로 제표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용한 연령은 다른 센서스 보고서의 “만 나이”와는 다른 소위 “세는 나이”이며, 이 연구에서는 1960년도의 추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표>에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출산억제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이었고, 당시 장면정권이나 이전의 이승만정권도 가족계획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 센서스를 도왔던 UN 자문단의 권고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총 43,744개의 관찰 사례 가운데, 이렇게 수정된 경우는 360개에 달했다. 한편 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주 양육자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출산율의 측정이나 추세에 있지 않다. 대신 센서스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출산현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 표본에서 결과가 동태통계의 출생신고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중심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센서스 0-4세 인구와 대체로 이들이 출생한 연도와 일치하는 2001-2005년의 출생신고 통계를 비교 제시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동태통계 자료가 100% 완전성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센서스의 0-4세 인구 집계는 완전성은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센서스의 4세 인구는 출생시부터의 사망확률을 고려하면 거의 완전한 집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완전성은 나이가 적을수록 떨어져 0세에 이르면 95%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2% 표본집계는 센서스에 비해 93.3%에서 96.7% 정도의 완전성을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표본이 일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데서 주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표본과 동태자료와의 차이는 더 커, 0세 표본인구는 2005년 출생의 90%에도 달하지 못한다. 이점은 2% 표본 집계결과에 입각한 분석결과의 평가와 이해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동태통계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2001-2005년의 동태통계 출산아 수와, 센서스 및 2% 센서스 표본의 0-4세 인구비교

동태통계 출생연도 / 센서스 연령	자료간 비교			2000센서스 연령 / 2000 센서스 연령	%
	센서스 / 동태통계	2%표본/동 태통계	2%표본/센 서스		
2005 / 0세	94.46	88.14	93.30	0세 / 5세	97.08
2004 / 1세	95.64	90.58	94.71	1세 / 6세	98.85
2003 / 2세	95.74	91.37	95.44	2세 / 7세	99.52
2002 / 3세	98.14	94.89	96.68	3세 / 8세	99.38
2001 / 4세	99.67	93.56	93.88	4세 / 9세	99.01
합계	96.87	91.85	94.82	0-4/5-9세	98.7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출생 및 사망), 각 해당 연도; 2000년 및 2005년 인구총조사 보고서; 2005년 인구총조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III. 기혼 여성의 출산추이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출산은 혼인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에서 총체적인 출산력의 변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로 유배우자의 비율과 유배우자의 출산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출산력변천은 주로 유배우 출산수준의 감소에 의해 설명이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2차 출산력변천에는 유배우 출산수준보다는 유배우 여성 비율의 급격한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전광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변화의 요인으로서 유배우율의 변화는 1970-85년 사이 20% 정도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그 이후 그

영향의 정도가 급증하고 있다. (1997: 62-65; 2006: 83) 이는 물론 198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 자체의 변화의 폭이 급격히 줄어들어 데 기인한다. 전광희에 기초해 유배우들의 변화가 직접 합계출산율에 미친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유배우를 변화의 영향의 절대값은 1970년대에 0.13-0.14 포인트에서 그 이후에는 0.2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다, 1995-20년에는 0.14 수준으로 떨어지고 2000-2005년에는 다시 0.34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배우 출산율은 장기적으로는 저하의 추세를 나타내지만, 부분적으로는 상승과 저하를 반복하고,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 또는 출산수준에 대한 유배우들과 유배우 출산력의 영향은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배우를 만을 대상으로 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2020년까지는 계속 합계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유배우자의 출산력의 저하 없이도 현재의 출산 규범과 실행이 지속된다면 출산 수준의 지속적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2005년 연령별 출산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혼인상태 분포변화에 의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계분 (절대값)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2000-05	0.141	0.140	-0.002	0.001
2010-20	0.164	0.164	-0.001	0.001
2020-30	-0.012	-0.014	0.000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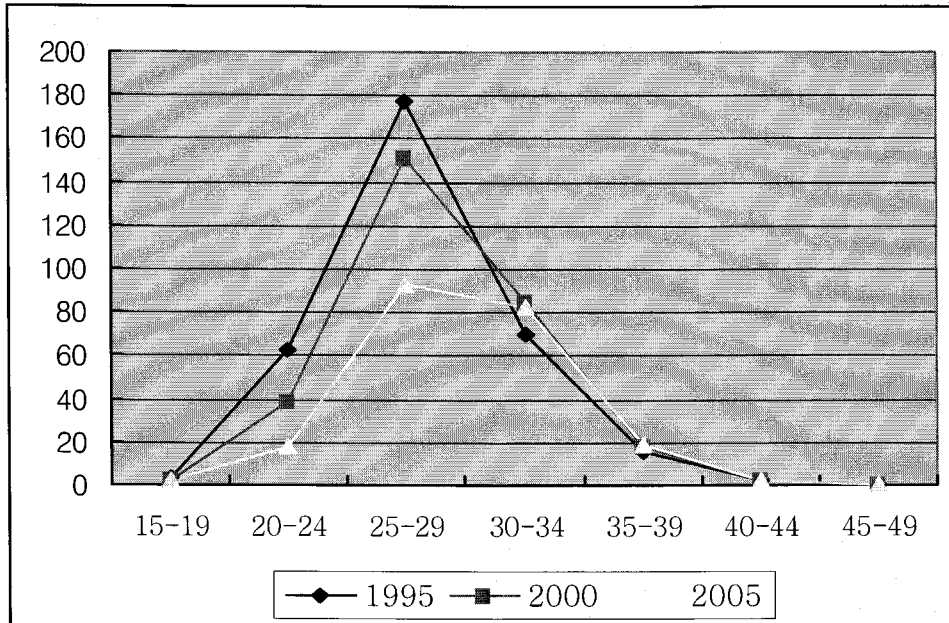
계산방법은 전광희, 2006: 81-83 참조.

자료: 2005-2030년의 혼인분포 추계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결과 65-70에 수록된 것을 사용함(미간행).

한편 유배우들은 미혼, 사별 및 이혼의 추세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최근 이들 세 혼인의 구성요소는 모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미혼과 이혼의 추세는 출산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사별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혼비율의 증가는 1920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그 직접적인 결과는 여성의 초혼 연령의 변화로 파악된다. 센서스를 이용해 연령별 미혼자 비율로부터 계산한 평균 초혼 연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25년 15.9세에서 80년 후인 2005년에는 28.8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Kwon T-H, 2007)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가장 중요한 출산력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생애 미혼자 비율은 강력한 보편혼 규범의 작용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고, 이는 출산력의 저하를 어느 선에서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생애 출산수준의 지표로 간주되는 평균 가족규모가 이상 또는 원하는 자녀수가, 재생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출산수준에서도, 2명 정도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조사자료는 보편혼의 규범이 급속히 약화되고, 미혼의 경향과 함께, 평생 미혼 상태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승권, 2003: 12-14; 김태현, 2005: 17-18; 은기수, 2003: 102-107).

그림 1: 연령별 출산율의 추세, 1995, 2000 및 2005년



또한 평생 비혼의 정도나 생애 출산수준에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만혼의 추세는, 연령별 출산수준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유형을 나타내는 모형은 연령만 옮겨지지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전광희, 2006: 85).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5년 이후의 추세를 보면, <그림 1>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전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않는다. 이는 다른 말로, 만혼이 30세 이전의 출산력을 크게 낮추나 그것이 30세 이후의 출산력을 높이는 데로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짙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유배우자가 이상자녀수에 따라 출산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이상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며, 이러한 상태에서 재생산 수준으로의 출생수준의 상승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혼은 1990년에 들어오면서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2006: 141-143 참조). 그러나 이혼의 출산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혼의 절대적인 다수가 높은 재생산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낮은 연령층에서는 이혼 여성의 재혼율이 상당히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사별자의 비율 감소는 출산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혼율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한국의 유배우율에 영향을 미쳐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만혼의 추세와 최근에 대두된 비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최근의 출산력 추세와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2005년 센서스에 반영된 기혼 여성의 출산 행위와 계획에 대해 살펴 보자. 우선 기혼여성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출산력변천이 시작된 1966년부터 최저 출산력 수준을 보인 2005년의 약 40년 사이에, 기혼자 집단의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인다. 가장 괄목할만한 기혼 비율의 저하를 보인 것은 20-24세와 25-29세 집단이다. 이들 연령집단에서 기혼자의 비율은 48.3%에서 6.3%, 92.3%에서 41.4%로 줄어들어, 각각 42% 포인

트와 51% 포인트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우, 기혼자 비율은 약 40년 사이에 77.0%에서 74.7%로, 2.3% 포인트의 감소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생산 연령 층에 속하는 15-49세 집단에서는 기혼자 비율이 70.8%에서 63.2%로 총 7.2% 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보편혼의 전통과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의 대부분이 25-29세 연령에서의 미혼자 비율의 증가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만혼의 추세와는 달리, 비혼은 이제까지는 출산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만혼은 불가피하게 선호 및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최저출산이 될 것이다. 30세 이후의 결혼 여성은 대부분 경제활동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경력의 단절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연주, 2003). 따라서 이들 가운데는 1자녀 또는 무자녀 가족을 선택 하는 경향이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다.

표 4: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 여성 비율 (%), 1966-200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합계	76.96	75.20	71.49	71.41	71.89	72.30	74.95	74.66
15-19세	3.88	2.79	2.30	1.79	0.85	0.52	0.67	0.30
20-24세	48.37	42.89	36.92	34.36	27.91	19.95	11.21	6.34
25-29세	92.27	90.56	88.66	86.33	81.63	78.31	60.29	41.26
30-34세	99.00	98.66	98.07	97.33	95.74	94.71	89.44	81.42
35-39세	99.69	99.59	99.38	98.98	98.39	97.47	95.79	92.59
40-44세	99.88	99.84	99.69	99.54	99.28	98.87	97.46	96.41
45-49세	99.90	99.91	99.73	99.71	99.57	99.30	98.22	97.49
50-54세	99.92	99.93	99.81	99.80	99.74	99.55	98.94	98.13
55-59세	99.93	99.94	99.76	99.83	99.81	99.64	99.25	98.73
60-64세	99.93	99.96	99.74	99.86	99.84	99.73	99.44	99.08
65-69세	99.93	99.92	99.64	99.89	99.87	99.76	99.59	99.30
70-74세	99.92	99.94	99.61	99.88	99.87	99.78	99.62	99.41
75 이상	99.93	99.96	99.74	99.90	99.66	99.80	99.68	99.35
15-49세	70.75	68.53	63.99	63.70	63.71	63.68	65.28	63.18

자료: 각 해당연도 센서스 보고서.

<표5>에는 1966년에서 2005년에 걸쳐 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기혼 여성의 출산력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모든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66년의 4.16명에서 2005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인구재생산 연령인 15-49세의 경우, 같은 40년 동안 평균 총출생아수는 4.16명에서 1.74명으로 약 60% 가까운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혼자의 출산수준은 기혼자가 현재 유배우자나, 아니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5: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1966-200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합계	4.16	4.15	3.95	3.59	3.26	2.97	2.54	2.43
15-19세	0.50	0.50	0.48	0.45	0.44	0.32	0.51	0.36
20-24세	1.10	1.03	1.00	0.92	0.86	0.70	0.70	0.65
25-29세	2.31	2.15	1.97	1.75	1.54	1.28	1.11	0.91
30-34세	3.78	3.53	3.18	2.67	2.29	1.89	1.71	1.52
35-39세	4.85	4.55	4.11	3.43	2.80	2.35	1.92	1.87
40-44세	5.53	5.28	4.79	4.16	3.44	2.83	2.01	1.94
45-49세	5.66	5.62	5.23	4.69	4.07	3.43	2.31	2.00
50-54세	5.49	5.65	5.47	5.09	4.58	4.07	2.72	2.30
55-59세	5.26	5.42	5.44	5.30	4.91	4.56	3.27	2.72
60-64세	5.08	5.22	5.19	5.30	5.13	4.90	3.89	3.30
65-69세	4.96	5.05	5.00	5.10	5.13	5.10	4.29	3.88
70-74세	4.85	4.91	4.86	4.93	4.97	5.11	4.52	4.27
75 이상	4.80	4.75	4.71	4.73	4.79	4.94	4.61	4.50
15-49세	4.16	3.70	3.43	2.94	2.52	2.13	1.81	1.74

자료: 각 해당연도 센서스 보고서.

<표6>의 2005년 센서스 2% 표본 결과에 의하면 29세 이하에서는 무배우 기혼자가 유배우자보다 평균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출생하고 있다. 이는 이들 초기 혼인연령에서는 자녀출생으로 인한 이혼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49세의 재생산 연령층을 총괄하면 이혼, 사별 여성의 출생 자녀수는 유배우자의 것의 95% 수준에 이른다. 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30세 이상에서 급속히 벌어져, 30-35세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85.4%, 35-39세에서는 81.5%, 40-44세에서는 78.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계획 자녀수의 차이는 훨씬 더 커, 이혼 및 사별자의 경우 유배우자의 계획자녀수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0-24세의 이혼 및 사별 여성들의 경우도 추가 계획 자녀수가 유배우자의 10%선에 머물고 있다.

표 6: 유배우부인과 비유배우 기혼부인의 출생아수 및 추가계획 자녀수

혼인상태	연령집단	총출생아수	추계획자녀수
유배우	20-24	0.65	1.04
	29-29	0.92	0.84
	30-34	1.54	0.33
	35-39	1.91	0.07
	40-44	1.98	0.01
	15-49	1.77	0.18
이혼+사별	20-24	0.97	0.11
	29-29	1.10	0.06
	30-34	1.29	0.01
	35-39	1.55	0.01
	40-44	1.67	0.00
	15-49	1.68	0.01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또한 2005년 센서스에서 총출생아수와 추가계획자녀수에 대한 응답자의 수가 이혼 및 사별자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 혼인생활 중이 아닌 이들의 응답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관련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계획자녀수와 이를 총출생자녀수와 합해 나오는 총기대자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대 출산력에 대한 논의는 유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관련 항목 응답에 미혼여성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피는 2005년 센서스 결과를 중심으로 한 출산관련 논의는 유배우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IV. 유배우 여성의 출산 행위와 유형

<표7>에는 2005년 센서스(표본조사)의 2% 표본을 통해 나타난 재생산 연령층 여성들의 출산관련 지표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현재의 혼인연령과 현재 유배우자의 혼인연령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4%가 이미 혼인한, 최고의 혼인연령을 기록하고 있는, 30-34세 여성의 경우도 2005년 현재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여성들의 혼인연령 27.7세에 비해 2.4세 정도, 그리고 2005년 센서스의 미혼자 비율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3.5년 정도 낮다 (통계청, 2006: 136; kwon T-H, 2007: T2). 한편 총출생자녀수는 대부분 결혼한지 5년이 지났을 것으로 판단되는⁵⁾ 이 연령층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1.54명이고 추가계획자녀수는 0.33명을 기록해, 현재 혼인생활 중인 30-34 여성들의 평균 생애 기대출생자녀수는 1.87이 된다. 한편 25-25세와 20-24세의 경우에도 총기대자녀수가 1.76명과 1.69명에 달해, 전반적으로 현재 유배우 집단의 기대 출산수준은 2005년 현재의 기간 합계출산율 1.0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리고 <표1>의 2001-2005년 출산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먼저 <표7>에 제시된 평균 생애 기대자녀수는,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낮은 혼인연령 집단에서 높은 경향이 보인다는 점, 다음으로 여기에는 비혼여성나 무배우 기혼여성이 배제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이는 다른 말로, 혼인연령 및 비혼의 경향과 관련된 연령별 유배우자의 비율이 실제 기대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다른 한편, 현재 낮은 연령층에서 앞으로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모든 재생산 연령층에서 연령이 낮아지면 생애 기대자녀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추세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2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배우 여성의 경우에도 실제 출생자녀수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자녀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코호트 별로 분석할 때, 이상적 자녀수와 생애 출생수의 괴리가 매우 작았고, 그것도 이상적 자녀수보다 출생아수가 약간 컸다 (권태환, 1997: 34-36). 이러한 점은 단적으로 현재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관련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30세의 경우 평균 혼인연령은 25.11세이며, 34세의 경우 25.33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유배우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혼인연령, 출생아수 및 계획 자녀수

연령	혼인연령	총출생자녀수	추가계획자녀수	총기대자녀수
15-19	17.81	0.35	1.22	1.57
20-24	21.06	0.65	1.04	1.69
25-29	24.31	0.92	0.84	1.76
30-34	25.35	1.54	0.33	1.87
35-39	25.11	1.91	0.07	1.97
40-44	24.49	1.98	0.01	1.99
45-49	23.74	2.05	0.00	2.05
15-49	24.57	1.77	0.18	1.95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러면 유배우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표8>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자신의 현재 거주지 배경, 교육수준, 종교를 택하여 이들 각각에 따른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⁶⁾

현 거주지에 따라서는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 그리고 추가계획자녀수, 모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는 모든 연령 층에서 다 같이 농촌에서 보다 큰 수치를 보인다. 반면 추가 계획자녀수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 3가지 지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현재의 총출생아수로 다른 2개는 이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계획자녀수는 총출생아수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생애 기대자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차이의 폭은 감소한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는 역상관성을 보인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 및 기대자녀수는 적어진다. 그러나 25-29세 집단에서는 중고등학교 출신 여성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보다 현재 더 많은 출생아수를 가지고 있고, 또 더 큰 미래 가족규모를 가질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인지, 즉 새로운 출산력 차별행위의 등장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종교가 없는 여성들에게서 가장 낮은 현재 및 생애 기대 출산수준이 관찰된다. 다음, 일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천주교 여성들이 이에 버금가는 저출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 불교, 기타로 구성되는 나머지 종교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 및 미래 출산력 집단을 형성한다.

현재 및 생애 기대 출산수준의 차별 유형은, 그 관찰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3가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 배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유형이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가 비종교 집단과 종교를 가진 여성들 사이에 뚜렷하며,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의 교리와는 달리 매우 낮은 출산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배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의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6) 자료의 구조상 직업이나 중사상의 지위와 같은 중요한 남편과 연관된 배경변수는 고려할 수 없었음. 한편 각종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차별출산력의 분석은 김두섭, 2007: 제6장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사회경제적 배경별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및 총기대자녀수

연령집단	사회경제적배경		총출생아	추가계획자녀	총기대자녀
25-29	합계		0.92	0.84	1.76
	거주지 배경	도시	0.86	0.86	1.72
		농촌	1.18	0.73	1.91
	교육수준	초등 이하	1.10	0.55	1.66
		중 고등	1.16	0.66	1.82
		대학 이상	0.72	0.99	1.71
	종교	없음	0.92	0.81	1.73
		불교	0.95	0.84	1.79
		개신교	0.91	0.90	1.81
		천주교	0.83	0.90	1.73
기타		0.91	0.87	1.78	
30-34	합계		1.54	0.33	1.87
	거주지 배경	도시	1.50	0.33	1.83
		농촌	1.74	0.29	2.03
	교육수준	초등 이하	1.75	0.19	1.94
		중 고등	1.70	0.24	1.94
		대학 이상	1.38	0.41	1.79
	종교	없음	1.53	0.31	1.84
		불교	1.60	0.32	1.91
		개신교	1.53	0.36	1.89
		천주교	1.51	0.35	1.86
기타		1.62	0.34	1.96	
35-39	합계		1.91	0.07	1.97
	거주지 배경	도시	1.88	0.07	1.95
		농촌	2.03	0.07	2.10
	교육수준	초등 이하	2.03	0.08	2.11
		중 고등	1.95	0.06	2.01
		대학 이상	1.83	0.09	1.91
	종교	없음	1.88	0.06	1.94
		불교	1.94	0.07	2.01
		개신교	1.93	0.08	2.01
		천주교	1.19	0.07	1.98
기타		1.95	0.08	2.03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급격한 출산력 저하와 함께 관찰된 한국 출산력의 독특한 대표적인 양상의 하나로 남녀 출생성비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출산순위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이는 다른 말로, 남자 아이가 없을 때, 다음 자녀출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의 성구성에 따른 다음 출산수준의 차이는 2005년 센서스에서는 매우 미미할 정도로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출생자녀수가 1인 경우, 그 자녀가 남아인 경우와 여아인 경우에, 모든 연령집단에서, 추가 자녀출생을 계획하는 경향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현재의 자녀가 여아인 경우와 남아인 경우에 추가로 자녀를 원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때, 다음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는 20-29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총자녀수 및 성 구성에 따른 평균 추가계획자녀수

연령집단	총자녀수	성구성					
		합계	남0+여1	남1+여0	남0+여2	남1+여1	남2+여0
20-24	0	1.46					
	1	0.79	0.80	0.77			
	2	0.25			0.42	0.10	0.37
25-29	0	1.48					
	1	0.71	0.74	0.68			
	2	0.14			0.24	0.11	0.12
30-34	0	1.25					
	1	0.49	0.54	0.45			
	2	0.06			0.12	0.04	0.05
35-39	0	0.68					
	1	0.18	0.21	0.15			
	2	0.02			0.04	0.01	0.01
15-49	0	1.14					
	1	0.34	0.40	0.29			
	2	0.02			0.05	0.01	0.02

유배우 여성에 한함.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리고 이들 집단에서 3번째 출생을 계획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자 아이만 둘이거나 여자 아이만 둘일 때에, 아들과 딸 각각 1명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선호에 있어, 남아선호가 약화되고 대신 남녀 균형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젊은 연령층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0-4세 인구의 출생상황과 양육환경

센서스의 0-4세 인구자료를 이용해 출산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개제하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에 상응하는 동태통계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표10>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비교가 가능한 0-4세 인구 중 첫 출산의 비율과 다태아의 비율을⁷⁾ 선택하여 이들을 동태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표11>에서는 출생자들의 평균 출생순위를 비교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센서스에서 0-4세 인구는 2000년 11월 1일에서 2005년 10월 30일 사이의 출생자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에 관한 출생관련 정보를 동태통계 자료와 비교할 때는 2001-2005년 출생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첫 출산자의 비율은 동태통계가 센서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표본을 일반가구에 한정시킨 2005년 센서스 2% 표본자료의 성격과 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첫 출산 자녀의 비율의 변화는, 그 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자료 모두 최근에 올수록

7) 다태아는 동일 가구 내에 동일 연도 출생 자녀 수가 둘 이상이며 이들이 동일 모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가리킴.

표10: 동태통계와 2005센서스 2% 표본자료의 비교: 첫출산 비율과 다태아 비율

출생연도	동태통계			연령	2005 센서스 표본	
	총출생아	첫출산 %	다태아%		첫출산 %	다태아%
1995	716,993	48.32	0.97			
2000	636,780	47.19	1.63			
2001	557,228	47.65	1.74	4세	45.3	2
2002	494,625	48.75	1.91	3세	46.6	2.3
2003	493,471	49.55	1.89	2세	47.8	2.1
2004	476,052	51.09	2.01	1세	48.1	2.2
2005	438,062	51.75	2.15	0세	49.7	2
2006	451,514	52.04	2.14			

센서스 표본의 경우는 모가 동거중인 자녀에 한함.

2% 센서스 표본의 경우, 다태아인 경우 각각의 출생에 다른 순위를 부여하였음.

2% 센서스 표본의 경우, “첫출산”은 총출산이 1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각 해당연도;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높아지는 현상을, 그리고 평균 출산 순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다태아 비율의 경우 센서스 0-4인구의 경우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태통계에서는 다태아 비율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2004-2006년의 수치는 센서스의 추정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센서스 자료가 동태통계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태통계보다 더 안정된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센서스의 0-4세 인구를 통한 출산현상의 논의가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11: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자녀의 출산순위 분포와 평균 출산순위 (% 순위)

출산순위	센서스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1	49.7	48.1	47.8	46.6	45.3	47.4
2	40.6	40.8	42.1	43.3	44.4	42.4
3+	9.7	11.1	10.1	10.1	10.3	10.2
평균순위	1.61	1.65	1.64	1.65	1.66	1.64
동태통계 자료 비교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평균순위	1.59	1.60	1.61	1.62	1.64	1.65

자료: <표 10> 참조

<표10>과 <표11>을 통해 명백한 것은 적어도 2001년 이후 최근에 올수록 출산 자녀 가운데 첫 출산의 비율이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선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최근 출생자들의 평균 출산순위가 계속 낮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진 혼인의 급증으로 인한 것인지, 혼인연령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둘째 아이 기피 또는 한 아이 선호의 확산 때문인지는 별도의 분석을 요한다. 그 주요 요인이 무엇

이던, 이 현상은 일단 현재 최저 출산수준의 상황에서도 한국 출산력은 저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이미 급격히 다가온 인구위기가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누구와 동거하느냐일 것이다. 특히 핵심 출산연령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상황의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녀양육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모의 역할이며, 그 대체 변수는 아마도 자녀와 모의 동거 여부일 것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개별 자녀에 대해 모의 동거여부를 묻고 있고, 앞의 “자료의 구성”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자녀의 주 동거 양육자에 관한 제표가 아래에 제시된 <표12>다.

표 12: 0-4세 자녀의 연령별 주 동거양육자 상황 (%)

동거상황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모동거	98.1	97.0	97.2	96.1	96.1	96.8
부동거	0.5	0.8	1.0	1.9	1.9	1.3
기타	1.4	2.2	1.8	2.0	2.0	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 표에 따르면, 2005년 센서스 당시 0-4세 자녀 가운데 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96.8%에 이르고, 부모 모두와 별거하고 있는 자녀가 1.9%를 보인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는 대부분 자녀의 “조모”로 되어 있어 이들 자녀는 3대 가족에서 생활하는 셈이 된다. 모와의 동거자는 나이가 많아지면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모동거” 자녀는 0세에서 98.1%이던 것이 3-4세에 이르면 96.1%로 감소한다. 모 동거자의 감소는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3>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가, <표14>에는 모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 양육자로 판단되는 부의 혼인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모동거”의 경우, 모는 0세 자녀의 99.7%, 4세 자녀의 98.2%, 0-4세 자녀의 98.8%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동거하는 유배우 상태에 있다. <표12>와 <표13>을 결합하여보면, 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자녀는 0세 자녀에서 97.8%, 4세 자녀에서 94.4%, 0-4세 자녀의 경우 95.6%로 나타난다. 한편 <표14>를 보면, “부동거”의 경우, 0-4세에서 유배우자는 35.1%에 불과하며, 60.4%가 이혼자임을 알 수 있다. 0세와 4세를 비교하면, 부동거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0세 자녀의 부의 유배우 비율은 72.2%에 달하나, 4세 자녀에 이르면 그 비율이 22.8%로 준다. 0세 자녀의 부 유배우도, 부인과 비동거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그 대부분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나 소위 여자가 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동거의 대부분도 부모 별거나 이혼의 경우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혼의 경우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0-4세 자녀는 1/3 정도만이 모와 동거하고 나머지는 부 또는 조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

혼인상태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사례수	7577	8364	8766	9018	10019	4374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99.7	99.1	98.8	98.4	98.2	98.8
사별	0.1	0.2	0.2	0.2	0.3	0.2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4: 모 없이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부의 혼인상태

혼인상태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사례수	36	70	90	183	197	5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72.2	45.7	35.6	36.6	22.8	35.1
사별	0.0	8.6	3.3	4.4	4.6	4.5
이혼	27.8	45.7	61.1	59.0	72.6	60.4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러면 2005년 센서스에서 0-4세 자녀를 출생한 여성은,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45% 정도가, 0세 자녀를 가진 자녀의 50% 정도가 처음 자녀를 출생하였다.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첫 자녀 출생 여성들의 자녀 출생시 연령은 전체적으로는 28.1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혼인연령은 26.4세로, 혼인에서 첫 출산으로의 이행이 1.7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첫 출생 당시의 출산여성의 연령, 첫 출생 여성의 혼인연령, 혼인에서 첫 출생으로의 이행 기간 모두 2005년 현재 4세 자녀집단에서 가장 적거나 짧고, 최근 출생집단에 오면 올수록 연령은 올라가고, 간격은 넓어져, 0세 집단의 출생연령은 28.6세, 혼인연령은 26.7세, 그리고 그 차이는 2.1세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01-2005년의 4년 사이에 가족의 형성과 가족형성에서 자녀 출생으로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모두 연기되어 왔음을 알려 준다. <표15>에 비교자료로서 제시된 동태통계에서 계산된 모의 첫 자녀 평균 출생연령은 상응하는 연령 또는 출생연도에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인다. 동태통계에서 계산된 것이 일관되고 0.2-0.3세 정도 높게 나타난다. 한편 총출생의 경우, 그 차이는 0.1-0.2세로 더 줄어 든다. 그것은 아마도 동태통계의 지연신고 또는 센서스 자료에서 모 비동거 자녀가 빠진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하간 이는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둘째 이상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규모의 확대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의 혼인연령은 첫 출생 여성에 비해 약 1.1-1.2세 정도 낮으며 출생연령은 2.3-2.6세 정도 높다. 그리고 0-4세 집단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변화 추세가 관찰된다. 최근에 올수록 혼인연령과 출생연령이 높아지고 둘 사이의 차이도 커진다. 이 둘의 차이 또는 이행기간의 차이는 1-3세에서 일부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표1>에 제시된 2001-2005년도의 합계출산력 추세를 고려하면, 이것도 오차라기 보다는, 오히려 출산력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0-4세가 된 둘째 자녀를 출생한 여성

들이 비록 혼인연령은 다르지만 첫 자녀를 출생한 여성들과 같은 이행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면 2001-2005년에 출생한 둘째 출생의 첫 출생으로부터의 이행기간은 0-4세 집단 전체로는 3.6년이 된다. 그리고 그 안의 자녀연령집단 별로는 3.4년에서 3.8년의 분포를 보인다. 8) 우연히도 이 첫째에서 둘째 출생으로의 이행기간은 0-4세의 모든 자녀의 모의 출생시 연령과 혼인연령의 차이와 일치한다. 이들 자녀의 개별 자녀 출생의 경우는, 대체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혼인연령과 출생시 모의 연령의 차이가 늘기는 하지만, 3.5년에서 3.75년 사이에 머문다. 또한 현재 젊은 연령층의 유배우 여성의 생애 기대자녀수가 1.8명 정도이고 2005년의 0-4세 출생자의 평균 출생순위가 1.64명임을 고려할 때, 자녀의 출생은 혼인 후 평균 4년 정도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생애에서 혼인에서 자녀 출생으로 이어지는 가족형성과 확산의 기간은 이미 매우 짧아 졌고, 당분간 이 기간은 유지되거나 떠 짧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어머니와 동거하는 2005년 센서스의 0-4세 자녀의 모의 평균 혼인연령과 자녀의 출생당시 모의 평균 출생연령과 동태통계 자료에서 계산된 2001-2005년 출생자 모의 출생시 연령

자녀순위	모의 연령	센서스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총자녀	혼인	26.11	25.95	25.81	25.58	25.40	25.75
	출생	29.85	29.62	29.33	29.21	28.93	29.37
	차이	3.74	3.67	3.52	3.63	3.53	3.62
첫자녀	혼인	26.68	26.59	26.39	26.18	25.99	26.35
	출생	28.55	28.29	28.12	27.87	27.60	28.06
	차이	2.13	1.70	1.73	1.69	1.61	1.71
둘째+	혼인	25.55	25.36	25.28	25.06	24.91	25.21
	출생	31.13	30.85	30.44	30.38	30.03	30.55
	차이	5.59	5.50	5.16	5.32	5.12	5.34
동태통계 자료	출생순위	자녀출생연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합계	30.0	29.8	29.4	29.3	29.1	
	1	28.8	28.6	28.3	28.0	27.8	
	2	30.8	30.6	30.3	30.0	29.7	
3+	33.2	33.0	32.8	32.7	32.4		

센서스에서 “모의 자녀 출생연령”은 해당 자녀연령에 상응하는 모의 연령에서 0.5세를 뺀 수치임.
자료: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및 전광희, 2006: 87.

8) 2001-2005년의 첫 출생자의 혼인에서 첫 출생으로의 이행은 물론 이들의 첫 자녀 출생으로의 이행보다 늦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따라서 첫 출생에서 둘째 출생으로의 이행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표15>에서 “둘째+”는 셋째 또한 일부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둘째 출생만을 포함시켰을 경우보다 이행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는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표 15>에서 “둘째+”를 “둘째”로 간주해 계산한 첫째에서 둘째로의 이행기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VI.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동태통계의 완전성이 낮았던 1980년 이전에는 출산력 연구가 인구센서스 자료와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동태통계의 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출산력 지표의 작성과 추세 및 유형의 파악은 주로 동태신고 자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1960년에 시작된 출산력 관련 문항은 200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센서스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출생아수 이외에 동태신고를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자료인 추가 자녀출산 계획, 생존-사망 자녀수, 동거-비동거 자녀수, 자녀들의 모와의 동거여부 등을 추가로 묻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그 목적이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된 기초 자료의 확보에 있지만, 출산력 연구의 폭과 전망을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유용성은 그 질 또는 완전성에 달려 있다. 아마도 센서스의 출산관련 자료들의 질과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관련 연구과제의 점검과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 그리고 그 결과의 다른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와의 비교일 것이다. 바로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의 체계성이나 정교함보다는, 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 가능하면 그 결과를 동태통계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가 기초 자료로 채택되었고, 고찰한 주요 내용은 총출생아수와 추가 자녀출산 계획, 이 둘을 합한 생애 기대자녀수, 기혼 여성의 초혼연령, 그리고 모와 동거하는 0-4세 자녀를 이용한 최근 출생의 출산 순위, 혼인-첫 출생-둘째 출생으로의 여성의 생애주기 이행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는 센서스를 통한 출산력 분석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첫 출생의 비율, 평균 출산 순위, 출생시 모의 연령 등과 같이 동태통계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한 내용에서는 그 일치의 정도가 매우 높으며, 약간의 차이도 부분들 사이에 매우 일관성을 보이고,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바로 센서스 특히 2005년 센서스의 출산관련 주요 자료들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센서스 자료의 완전성이 동태통계와 비슷하다는 것은 출산력 분석에 있어 센서스가 동태통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태통계에서는 혼인 관련 사항은 혼인이나 이혼 신고를 통해 별도로 파악하고, 사별 현황의 파악은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혼인상태와 관련된 출산력 분석은 동태자료에서는 간단하지 않다. 혼인상태나 혼인연령이 출산력과 출산행위의 핵심적 배경요인이라면, 그리고 센서스의 출산관련 정보가 신뢰성이 매우 높다면, 이와 관련된 동태자료의 한계는 센서스를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행위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해 출산을 이해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만들어 사용한 모의 정보와 결합된 0-4세 자녀의 파일은 여성의 생애주기 연구에 있어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0-4세 자녀 파

일로는 개별 여성의 생산가족형성에서부터 최대 규모의 가족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파일을 0-9세로 확대하면 보다 충실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별거 자녀나 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관한 분석은 부와 동거하는 자녀의 부의 혼인상태에 대한 간단한 고찰에 제한되어 있다. 모의 동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도 부를 중심으로 한 출산의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한 가구에 아동 인구가 2명 이상일 경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는 물론 자녀들 사이에 출산서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이다. 소가족 가구나 핵가족 가구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확대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 동거하는 가족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가지고는 명확하게 성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출산력과 출산행위 분석에서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지위를 가구주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현재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핵가족 단위로 파악하는 “부부-자녀 관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미래 출산력 추세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 0-4세 자녀의 연령별 첫 출산과 혼인에서 출산으로의 이행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 반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의 경우 비혼과 이혼의 증가는 혼외 또는 미혼 출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한 나라의 출산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혼인과 출산규범, 그리고 미혼자들의 자녀 양육환경이 바뀌면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센서스에서는 모든 출산 관련 정보를 기혼 여성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센서스의 출산관련 항목의 응답대상을 미혼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태환. 1997.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제1권 제1집,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민경.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서울: 글로벌.
- 김승권.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12 (통권 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2005.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2005-4 (통권 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 2003. “가족가치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복지고서』. 여성부.
- 이연주. 2003. “결혼과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보건복지 포럼』 2003-12 (통권 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희. 2006. “한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추이와 전망” 『통계』 제32권 1,2호 통합본. 대한통계협회.
- 전광희. 1997. “출산력 변화의 메커니즘”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화의 이해』. 서울: 일신사.
- 통계청. 2006. “2005년 동태통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와 사회』 2-2.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통계청. 2007. 『장래 가구추계 결과』. (미 간행)
- Cho L-J. 1973.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No. 29.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Kim M-K. 2004. “population and census and other data sources” in Kim D-S & Kim C-S (eds.),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T-H. 2007. “Trends and implications of delayed and non-marriag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3-3.